



이
명
옥
의
시
집

시를 좋아하세요...

미술관장 이명옥이 매주 배달하는
한 편의 시와 그림

일주일에 한 편씩, 당신이 거기 있다, 고
생각하며 시를 골랐습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만,
당신을 찾겠습니다

이
명
옥

나쁜 소년이 서 있다

허 . 연

세월이 흐르는 걸 잊을 때가 있다. 사는 게 별반 값어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파편 같은 삶의 유리 조각들이 너무나 처연하게 늘 한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무섭게 반짝이며

나도 믿기지 않지만 한두 편의 시를 적으며 배고픔을 잊은 적이 있었다. 그때는 그랬다. 나보다 계급이 높은 여자를 흠치듯 시는 부서져 반짝였고, 무슨 벡타이 부대나 도둑들보다는 처지가 낫다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외로웠다.

푸른색, 때로는 슬프게 때로는 더럽게 나를 치장하던 색. 소년에게 했고 시인에게 했고, 뒷골목을 헤매게 했던 그 색은 이젠 내게 없다. 섬섬하게도

나는 나를 만들었다. 나를 만드는 건 사과를 베어 무는 것보다 쉬웠다. 그러나 나는 푸른색의 기억으로 살 것이다. 늙어서도 젊을 수 있는 것. 푸른 유리 조각으로 사는 것.

무슨 법처럼 한 소년이 서 있다.

나쁜 소년이 서 있다.

○ ○ ○

20세기를 대표하는 영국의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는 58세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슬을 더듬기엔 이제 그리 민첩하지 않은 다리, 새로운 감동에 이제 그리 민감하지 않은 마음, 도약하기에는 이제 민첩하지 않은 짓밟힌 희망.’

이 글만 보면 버지니아의 몸과 마음의 나이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반면 시 속 화자는 몸과 마음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화자 자신도 ‘믿기지 않’을 만큼 신체 나이는 많아졌지만, 마음의 나이는 소년시절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비록 생물학적 나이는 들었지만 ‘한두 편의 시를 적으며 배고픔을 잊은 적이 있었다. 그때는 그랬다’라는 시구에서 나타나듯 몸의 굶주림보다는 허기진 영혼을 채우는 게 더 중요했던 시절의 순수함을 간직하려고 노력합니다. 화자는 ‘늙어서도 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푸른 유리 조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화자가 젊음을 푸른 유리 조각에 비유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먼저 파랑은 영혼, 하늘, 명상, 신성, 우주, 진실, 고결함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파랑이 젊음의 색으로 선택받는 근거죠. 인생의 젊은 나이와 시절을 가리키는 단어인 청춘(靑春)에도 푸른색(靑, 푸를 칭)이 들어 있어요.

다음으로 '유리 조각'은 청춘의 상처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순수함을 지키려면 고통과 희생을 대가로 치러야 해요. 청춘의 무기인 무분별한 열정, 아름다운 반항, 불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권위적이고 불합리하고 위선적인 기성세대의 제도와 가치관과 온몸으로 부딪치며 싸워야 합니다. 격렬한 투쟁과정에서 피 끓는 심장과 예민한 영혼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현실에 베어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게 되지요.

그에 따른 불안과 혼돈, 고뇌, 절망에 따른 허무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힘들게 성인식을 치른 나이트 사람들일수록 고통이나 상처 입을 일은 피하려고 해요. 도전하고 저항하는 대신 안주하고 타협하려고 하지요. 저는 영원한 젊음을 갈망하는 화자가 늙음을 두려워한 이유는 바로 그 점에 있다고 봅니다.

○ ○ ○

청춘의 영광과 상처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푸른 유리 조각은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류의 대표작인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에서 주요 소재로 등장합니다. 1970년대, 일본 젊은 세대의 고뇌와 방황, 상실감을 주제로 다룬 이 소설의 주인공은 미 해군기지가 있는 동네에서 사는 19세의 주인공 류입니다.

류는 마약과 그룹섹스 파티에 탐닉하는 탈선한 청춘세대로, 사회규범을 벗어난 낙오자, 삶의 의미를 상실한 허무주

의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성세대를 향한 환멸과 거부적 감정을 반사회적인 행동과 극단적인 자기파괴로 드러내는 나쁜 청년 류의 내면에는,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상처받기 쉬운 소년이 살고 있어요. 내면의 소년은 순수의 세계를 동경합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푸른 유리 조각을 묘사한 문장이 나오는데 유리 표면에는 류의 피가 묻어 있어요. 붉은 피는 청춘의 희생을 뜻합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현실세계를 상징하는 '검은 새'로부터 벗어나 구원의 세계인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 류가 치러야 하는 청춘의 대가입니다.

다음 글이 소설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 거대한 검은 새가 이리로 날아오고 있다. 나는 양탄자 위에 있는 유리 조각을 집어 들었다. 그것을 꼭 움켜 쥐고서 떨고 있는 팔에 꼭 쥔다. (...)
- 피가 가장자리에 묻은 유리 파편은 새벽 공기에 물들어 투명에 가깝다.
-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다.
- 나는 일어나서 나의 아파트를 향해 걸어가면서 이 유리
- 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안창홍의 그림에서도 푸른 유리처럼 투명한 상처의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한 밤. 푸른 어둠 속에서 깡마른 한 아이가 추락사의 위험을 무릅쓰고 낭떠러지



안창홍, 〈꽃과 청춘은 어둠 속에서만 아름다운가〉, 1992년,
종이에 혼합매체, 79.5×109.5cm

에 피어난 꽃을 꺾고 있어요. 별빛에 드러난 아이의 성기는
절벽 끝에 피어난 꽃에 매혹당한 아이가 소년이라고 말해줍
니다. 소년은 가슴에 꽃을 한 아름 안고도 또 다시 꽃을 꺾
으려고 절벽을 향해 손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소년의 발이 딛
고 서 있는 곳은 땅이 아니라 붉은 피 웅덩이입니다. 소년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대지로 스며들어 피의 늪이 만들어
진 거죠.

별, 꽃, 소년은 그리움과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피로 물든
땅은 절망과 고통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꽃 한 송이를 꺾을
때마다 소년은 그만큼의 위협에 해당되는 피를 흘렸겠지요.
소년에게 꽃을 꺾는 행위는 목숨을 희생시킬 만큼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의미지요.

화가는 푸른 어둠과 붉은 피의 강렬한 색채대비로 아름다
움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와 권력, 명예
도 아닌 오직 꽃을 탐하는 순수한 마음. 아름다운 꽃을 얻기
위해서라면 소중한 생명과도 맞바꿀 수 있는 무모한 열정. 이
그림은 푸른 유리 조각의 삶을 갈망하는 청춘에게 바치는
찬가입니다.

○ ○ ○

이 글을 쓰는 동안 시의 마지막 연의 '무슨 범처럼 한 소
년이 서 있다. / 나쁜 소년이 서 있다'에서 '나쁜 소년'이 무
슨 뜻인지 묻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말 그대로인 비행청소
년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죄악에 물든 타락한 어른세계와

대비되는 소년기의 순수함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나쁜 소년’과 같은 의미로 ‘나쁜 피’가 있어요.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아르튀르 랭보의 시집에 실린 「지옥의 계절-나쁜 혈통」편에 이런 문장이 실려 있어요.

— 어떤 가슴을 내 깨뜨릴 것인가? 어떤 거짓말을 고집해야 하는가? 어떤 혈기로 걸어가야 하는가? (...)

나는 고문을 받으며 노래하는 종족이다. (...)

나는 짐승이다. 흑인이다. 그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

가장 멋진 것은 이 대륙을 떠나는 것이다. (...)

나는 캄(Cham, 구약성서 속 노아의 둘째 아들 ‘삼’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흑인의 근원)의 진정한 어린이 왕국에 들어간다. (...)

— 나의 순진함이 나를 울게 하리라.

길들여진 행복에 안주하는 기성세대의 눈에는 거짓과 위선에 저항하는 젊은 세대가 위협적이며 불순한 존재로 비칩니다.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나쁜 피를 가진 나쁜 인간인 거죠.

가장 위대한 록 밴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영국의 더 후(The Who)의 대표곡 〈마이 제너레이션 My Generation〉(1965)에 다음과 같은 가사가 나옵니다.

— 노인네들이 우릴 끌어내려고 해(우리 세대에게 뭐라 하

면서)

관을 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우리 세대에게 뭐라 하면서)

그 사람들은 끔찍하리만큼 냉소하게 봐(우리 세대에게 뭐라 하면서)

더 늙기 전에 차라리 난 죽기를 원해(우리 세대에게 뭐라

— 하면서)

이 노래는 ‘더 늙기 전에 난 차라리 죽기를 원해’라는 도발적인 가사 덕분에 젊음의 성가(聖歌)로도 불리고 있어요. 제 자신도 믿기지 않지만 더 늙기 전에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고 외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청춘의 약속을 저버린 채, 죽지도 않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해봅니다. 화자처럼 푸른 유리 조각의 삶을 꿈꾸며 늙어갈 수만 있다면 말이죠.